

이기는 삶

푸대접

혹시 누군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경험은 분명 유쾌한 일이 아니다.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쓰디쓴 경험이 당신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 주는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좋은 예로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에 소개된 에스티 로더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어머나! 입고 계신 블라우스 정말 아름답군요. 어디서 사셨나요?”

한 화장품 판매원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있는 여자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자 아름다운 옷을 걸친 그 여인은 거만하게 대답했다.

“어디서 샀든 그것이 아가씨에게 무슨 상관일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아가씨는 이런 옷을 살 수 없을 텐데!”

이 말을 들은 판매원 아가씨는 가슴이 두방망이질치고 얼굴이 화끈거려

도저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에게 이런 소리를 못하게 할 테다.”

마음의 상처를 깊이 간직한 이 여인은 마침내 자신의 다짐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녀가 일군 회사의 이름은 바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 로더'이다.

에스티 로더는 자신의 자서전 '항기를 담은 여자'의 앞머리에 이 일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나는 첫 번째로 화장품 제조 허가를 얻었던 플로렌스 모리스(Florence Morris) 뷰티 살롱에서 만난 한 여자를 기억하고 있다. 그 여자가 내 기억 속에 등장한 순간 나는 그 여자를 몹시 경멸했다. 그 일을 생각만 해도 그 당시의 날카로운 고통이 다시 느껴진다. 그 여자는 내게 영원히 소갈머리 없고 잔인한 인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푸대접을 계기로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를 일군 '에스티 로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나의 성공을 위한 촉매제가 되었다. 만일 그 여자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의 에스티 로더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출처 <부자들의 생각을 읽는다> 이상건 지음

누군가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면, '다시는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푸대접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결심하라. 당신을 푸대접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성공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결심은 분명 나에게 삶에 대한 열정과 생기와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가장 통쾌한 복수가 될 것이다. 푸대접을 받고 속상했던 그 순간의 가슴 아픈 경험이 나의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way of mind to immortality 마음으로 가는 영생 길

이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마음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 This is the way of mind. Therefore the achievement of immortality is also done by the mind. There must be belief in immortality.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생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 To achieve immortality, one must keep belief in immortality in one's mind. But, Satan keeps watching the mind, to rob it of the belief in immortality.

마귀는 영생의 마음을 뺏기 위한 기회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리자가 여러 번의 힘든 육체 노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Satan tries to find a chance to rob the mind of immortality. Some think that the Victor had severe trials of heavy manual labor.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긴자께서는 마음의 연단을 가지셨고 마음의 투쟁을 하신 것입니다.

▶ But, that is a misunderstanding. The Victor had trials of the mind, mind-struggling trials.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자가 이루신 영생의 성취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 Therefore, we must learn the process of achievement of immortality that the Victor did.*

by Alice

터키의 아라랏산은 방주가 도착한 곳이라면 노아 방주를 만든 곳은 백두산

성경에 방주를 만든 곳은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최초로 거주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대적 마귀를 의식해야 함으로 아담과 해와가 처음 거주한 곳을 숨겨야 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 또한 머리를 감추고 꼬리를 숨기는 장두은미(藏頭隱尾)식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 창세기를 본다면 아담과 해와가 최초로 거주한 곳이 서방이 아니라 동방에 해당하는 천산산맥 근교의 평원이라든지 알타이 산맥의 평원으로 비정(比定)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든 곳이 한반도의 백두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발생 후 방주가 멈춘 곳이 터키의 아라랏산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백두산 잣나무 숲과 방주가 멈춘 터키의 아라랏산

대홍수 발생 전에 방주를 만들었던 곳은 잣나무 서식지입니다.

방주에 사용된 잣나무의 학명은 피누스 코라이엔시스(Pinus koraiensis)로 종명 koraiensis는 한국을 뜻한다

오염송(五葉松) 또는 홍송(紅松)이라고 불리는 잣나무(Korean Pine)는 해발고도 1,000m 이상에서 곧게 자라며 높이가 30m, 지름 1m의 커다란 나무

입니다. 이러한 잣나무 서식지는 백두산과 연해주(시호테 일린 산맥 중부 지역)입니다. 잣나무(Korean Pine)는 대체로 300살까지 살며 500살 된 것도 있습니다.

이쯤해서 노아 방주를 만든 곳은 잣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백두산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평균수명은 오늘날의 인간보다 열 배 이상 되었으

니까 아마도 잣나무도 더 오래 자라고 굵기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50m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짓는 것보다 산골짜기에 잘 자라는 잣나무의 서식처 즉 해발고도 1,000m의 침엽림대에서 방주를 건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두산 정상보다 산중턱의 골짜기가 의식주 해결을 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진짜 구세주가 출현하였으므로 이제 비로소 진정한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죽어서 천당 또는 극락에 간다는 것은 거짓된 소망이다.

백두산은 방주에 태울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천혜의 서식지였다

대홍수가 발생할 때 방주 안으로 수천 종의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동물들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만약 방주가 백두산 해발높이 1,000m의 침엽림대의 골짜기에 있었다면 바로 아래에 위치한 침엽림 혼합림대(해발 높이 500~1000미터 사이)에 서식하는 호랑이, 곰, 사슴, 노루, 멧돼지 등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쉽게 포획하여 방주 안으로 태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급기야 대홍수가 발생하여 온세상 지면이 물에 잠기고 계속해서 수위는 상승하여 산중턱에 있던 노아의 방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불어난 물이 천하 높은 산을 다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자전에 의한 북반구에서의 서안강화 현상으로 방주는 동에서 서로 이동

지구 전체가 물로써 뒤덮여 있는 상태에서 방주가 물위에 떠다녔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방주가 백두산에서 건조되었다면 분명 대홍수로 물에 뜬 방주는 서쪽 방향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자전에 의한 북반구에서의 서안강화 현상을 감안하면 노아의 방주는 북위 41도의 백두산에서 서쪽 멀리 있는 북위 40도의 아라랏산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백태선 기자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이제 종설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그대의 휴식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을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산사에 정물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직진 영혼에 한층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그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그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공간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재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